

#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결 정

사 건 명 15-학인-00041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 청 인 000(피해자의 어머니)  
피 해 자 000(00고등학교 1학년 1반, 00부, 00)  
피 신 청 인 000(00고등학교 00부 감독)

## 주 문

###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운동부 지도자가 운동부 학생을 지도하면서 체벌을 한 것은,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므로, 다른 학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해 스포츠인권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2. 00고등학교장에게,

00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5. 7. 28.(화)

나. 신 청 인 : 000(피해자의 어머니)

다. 피 해 자 : 000(00고등학교 1학년 1반, 00부, 투수)

라. 피신청인 : 000(00고등학교 00부 감독)

마. 구제신청요지

2015. 7. 15. 21:35경, 00고등학교 기숙사 2층 5호실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본 피신청인이, 손에 들고 있던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려 상처를 입혔다.

## 2.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 3.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 가. 신청인 및 피해자의 주장

1) 구제신청요지와 같이 피신청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는 체벌을 받다가 무릎을 꿇은 상태로 방바닥에 주저앉았는데,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일어나라”, “피 닦고 와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정신이 없어 바로 일어나지 못하자, 피신청인이 “하나,

둘, 셋”하며 숫자를 센 것으로 기억한다.

3) 피해자는 체벌을 받다가 방바닥에 무릎을 부딪힌 충격으로 통증이 있어, 2015. 7. 30. ~ 9. 4. 00시 00분 소재 00병원에서 총 24회 통원치료를 받았다.

4) 2015. 7. 16.(목) 오전, 0000병원에서 머리 부분을 봉합한 상처에 대하여 소독 치료를 받았는데, 담당의사가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운동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2014., 2015. 00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학생인권교육을 2~3회 받았다.

2) 2015. 7. 30. 0000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이 사건 혐의(폭행)로 조사를 받았다.

3) 2015. 7. 15.(수) 21:35경 00고등학교 기숙사 2층 5호실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소지 금지 시간 중에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 “핸드폰 왜 가지고 있어? 이거 뭐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껴대보기에, 손에 들고 있던 컵(높이가 10cm정도 되는 초록색 플라스틱 재질)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렸다.

4) 체벌 직후 피해자의 머리에 출혈이 있었고, 피해자가 방바닥에 떨어진 피를 발로 닦기에, “(방)발로 닦지 말고, 얼굴에 흐른 피를 닦아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를 22:00에 있는 점호에 참여토록 한 후 피신청인의 숙소(7호실)로 갔다.

5) 00부 내부규정상 휴대전화 사용은 18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한데,

사건 당일 000 코치가, 임의로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22시까지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였다’고 사후에 보고하여 알게 되었다.

6) 피해자를 강하게 때린 것은 아닌데, 컵의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때리다보니, 컵의 밑바닥 모서리 부분과 피부가 접촉되어 본의 아니게 피해자에게 상처를 낸 것 같다. 피해자를 체벌할 때 사용한 컵은, 초록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컵이다.

7) 평소 주량은 막걸리 1병 정도인데, 사건 당일은 00 00중학교 00 부 감독 및 우리학교 코치 2명과 함께, 학생들의 대학진학 문제와 신입생 스카우트 문제 등을 이야기하면서, 학교 앞 막걸리집에서 막걸리 4잔을 마셨다.

8) 평소 한 달에 2~3회 정도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그 때도 반주로 막걸리 2잔 정도만 취하지 않게 마신다. 술 냄새가 나면 학생들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학교 측의 전달사항이 있어, 주의하여 왔다.

9) 2015. 7. 16. 새벽에 000 코치로부터, ‘전날 점호를 마친 후, 피해자를 학교 근처에 있는 0000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는 것과,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다음 주 금요일(7. 24.경)에 소독치료만 하면 되고, 운동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10) 2015. 7. 16. 11:40 000고와의 경기가 종료되고, 12:30경 학교에 도착하니, 피해자의 부모님께서 와 계시기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부모님께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리며 사과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니, 피해자는 ‘네’라고 대답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님은 사과를

받지 않았다.

11) 2015. 7. 20. 00부원 전체를 소집하여, “00이 일과 관련하여 감독으로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고, 00이 훈련 복귀하면 왕따 시키거나 하지 말고, 함께 운동 열심히 하도록 하자” 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였다.

#### 다. 참고인(00부원 3학년 000 외 24명, 1:1 개별면담)의 진술

- 1) 피신청인은 평소 체벌을 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는다.
- 2) 피신청인이 음주 후 늦은 시간에 기숙사에 귀소하는 경우가 있고, 새벽훈련(6시~7시) 때 피신청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기도 한다.

### 4. 인정사실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인정사실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 가. 인정사실

- 1) 00고등학교 00부 내부규정상,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18시부터 21시까지만 가능한데, 2015. 7. 15.(수) 사건 당일에는 000 코치가 학생들에게 22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 2) 2015. 7. 15.(수) 21:35경 00고등학교 기숙사 2층 5호실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본 피신청인은, 손에 들고 있

던 컵(초록색 플라스틱 재질)의 손잡이를 잡고 밑부분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

3) 피해자는 피신청인이 머리를 때리는 과정에서 그 충격으로, 무릎을 꿇은 상태로 방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방바닥에 두 무릎을 부딪혔다.

4) 2015. 7. 15.(수) 점호(22:00) 종료 후, 코치 000이 피해자를 '0000병원'(00시 000 소재) 응급실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는 해당 병원 에서 소독 및 봉합처치 등의 치료를 받았다.

5)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에 2개의 열상이 생겼고, 이 상처 각각에 의료용 봉합핀(총 3개 사용)으로 봉합 치료를 받았다.

6) 인정사실 3)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00시 000 소재 00병원에서 양슬관절 건초염(의증)으로 초진일(2015. 7. 30.)로부터 약 3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7) 2015. 8. 3. 00고등학교장은 학생부장 000을 강사로 하여 00부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8) 2015. 8. 11. 피신청인은 선수보호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후, 00고등학교장으로부터 계약해지(해임)되었다.

9)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5. 7. 30. 0000경찰서 에서 상해혐의(사건번호 : 0000경찰서 2015-006831)로 조사를 받았고, 해당 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약식기소 되었다.(2015. 11. 2. 벌금 300만원)

## 나.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2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스포츠지도자(교사, 코치 등 포함)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00고등학교에서는 인정사실 8)과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여 그 직에서 해임되었고, 인정사실 9)와 같이 약식기소되는 등, 피신청인에 대한 별도의 신분상 처분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발생한 것은, 운동부 지도자가 운동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므로, 다른 학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스포츠인권) 실시

등을 포함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 인정사실 7)에서 알 수 있듯이, 00고등학교는 피신청인의 체벌을 목격하였거나,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한 다수의 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이는 학교폭력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학생 및 이를 목격한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보호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해학생 및 이를 목격한 학생들은 운동부 학생들이므로, 스포츠인권과 관련하여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와 같은 일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2. 21.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서명)



## [별지] 관련 규정

###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라.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차별은 금지된다.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